

전북도, '어민 공익수당' 도입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등 조성 위해 제도 신설... 어가당 60만원 지급

전북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내년부터 '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어가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어촌지역 교량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어촌마을 존치까지 위협받고 있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해왔다.

이에 도는 산타농정위원회 TF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어가로 추산된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 법령 준수 및 환경친화적 협약 등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동)에서는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내년 9

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해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어·귀촌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운동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도내 어업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과 어촌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 총 5개 선정

참예우·장수한우·총채보리한우·태흥한돈·농협목우촌

전북도 축산물이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우수 상품으로 인정받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소비자 시민모임(소시모)에서 발표한 '2020년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에 총 5개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축산물로는 한우 브랜드 참예우, 장수한우, 총채보리한우와 돼지고기 브랜드 태흥한돈, 농협목우촌(프로포크)이 각각 인증받았다.

소비자 시민모임(소시모)은 소비자가 품질, 위생, 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인증하고 있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도의 추천을 받아 브랜드 공급관리, 품질관리, 브랜드 관리, 위생안전관리 항목을 축산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의 평가와 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까지 1년간이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발굴 육성해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의 축산물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한국외대 EU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14개국 80여명 권역별 전문가 온라인 참여해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 방향 등 논의

전북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영화회의 거리내 전주영화도서관에서 '전라북도-한국외대 EU연구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국 80여명의 권역별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코로나 시대 '지자체의 국제교류 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개최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러졌다'.

또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태국학회, 한국유럽학회와 공동 주최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능력을 가진 한국의외국어대학교와 가장 한국적인 매력을 풍요하는 전북도가 '특화된 유니크한 개최지, 소규모 디지털화, 온라인으로 참여기회의 확대'라는 코로나 시대 국제회의의 트렌드에 맞는 상호요구가 결합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세계화와 글로벌 지방자치 재조명' 주제로 다양한 그룹 토의를 거쳐 지자체의 교류영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대학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를 통한 4개 세션, 11개 토론그룹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유럽 지역주의와 최근 경향 ▲글로벌 시대와 인도의 대전환 ▲코로나 시대의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방향과 전략 ▲세계화와 변화하는 유럽 EU의 미래 ▲러시아 지역의 최근 변화의 흐름과 의미 ▲태국과 태국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세계화를 진단하고 논의한다.

특히, 전북경제성장진흥원과 함께 실



전북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영화회의 거리내 전주영화도서관에서 '전라북도-한국외대 EU연구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인 웹엑스(wetex)를 통해 국내외 인도연구소 사업단, 같은 대학 터기·몽골 연구사업단의 인도·터키지역 통상전문가들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현지 진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대면교류가 멈추는 국제교류의 위기 속에서도 '단절이 아닌 새로운 연결'이라는 비대면 참여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간 화상회의, 온라인 해외공무원 연수 등 온라인 교류행사와 서신교류 방역물품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자매우호도시 간의 국제 공공교류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한 전북세션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 국제교류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북도 국제교류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북도의 국제교류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

가 됐다. 한국외대 EU연구소 김봉철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국가 간의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국제교류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한국외대 EU연구소와 연대의 깊이를 더해 전북도가 국제교류를 확장시켜 나갈 연결동력을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전북도 한민회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대응행과 세계화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이브리드 국제회의라는 형식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했다"면서 "위기의 국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실리적인 전북의 국제정책 마련을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 시행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 자금 거치·상환 기간 2년 연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농업인의 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을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반면, 지원 제외 대상은 비농업용 부

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농·수·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등이다.

대상자금은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 기일이 도래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 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료대 등) 등이며,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인 20억(법인 30억)

이내이며, 기 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월 8일)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 농업인이 자기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사실 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등 경영위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분야 숙련도 시험 평가 '우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양호 평가를 받으며, 측정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식·의약품분야 숙련도 시험'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품 12항목, 의약품 3항목, 화장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양호, 주의,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해 평가된다. /유호상 기자

도 중국사무소, 광저우서 전북도 홍보 나서

전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가 중국 광저우 최대 변화가인 베이징투(北京)에서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중국사무소는 17일부터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가 개최하는 '2020 광저우 캔톤 페스티벌'에서 전라북도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광저우국제여행사 등 광동성의 주요여행사를 찾아 전라북도를 홍보했다.

특히, 전북 홍보관은 개막날인 17일에 운영됨에 따라 광저우시 인민정부 및 여행관련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평소 유동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베이징투에 홍보관이 운영됨에 따라,

여행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도 전북 홍보관을 방문했다.

중국사무소는 관광총괄과의 협조로 태극선 부채를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북도 인지도 제고에 힘썼다.

또한, 20일에는 광저우 최대 한국어 학원인 '한통한국어학원'과의 연계로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가 운영하는 홍보관인 코리아플라자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사무소는 '한통한국어학원'과 내년에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도 펼쳐가겠다는 구상이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한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설했던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